

어린이책 출판, 작가정신이 아쉽다

이송희 |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요즘 어린이책 출판이 아주 활발해졌다. 창작동화부터 그림책, 지식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초라하기까지 했던 우리 어린이책 출판 현황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이런 출판 현실이 그저 반갑지만은 않다.

어린이책은 무엇보다 어린이의 삶을 제대로 잘 담아내야 한다. 6~7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화에는 어린이의 일상을 섬세하게 담아내는 작품이 많지 않았다. 사회 역사의 큰 사건이나 커다란 주제 의식을 담은 동화들은 많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붙잡아 그리는 동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견줘볼 때 최근 4~5년 사이에 아이들의 일상과 특성을 담아내는 동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동화들 대부분이 그저 아이들의 자잘한 일상을 담는 데만 머물고 있어 오히려 아이들을 일상에 파묻히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삶이란 온통 시시하고, 아무런 바람도, 지향도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요즘 아이들의 특성과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이들 세계를 깊이 있게 담아내는 작가 정신이 아쉽다.

어린이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부터 품어온 조그마한 내 꿈 가운데 하나는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좋은 동화집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담 없이 즐기며 읽을 수 있게 정성껏 그린 그림과 좋은 단편 동화 몇 편이 담긴 작품집. 요즘 이런 내 꿈이 현실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다지 반갑지는 않다. 정성껏 그린 그림이 절제돼 들어가 있는 좋은 글책은 아이들이 작품의 맛을 충분히 즐기고 그림도 감상하면서 읽을 수 있다. 전체 동화 분위기를 잘 살린 그림이라면 단 한 컷이라도 충분히 책의 세계를 잘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글책이라면 당연히 그림보다는 글이 먼저여야 하고, 그림으로 설명해주기 이전에 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 그런데 요즘 출간되는 저학년을 위한 동화들에는 유행처럼 차라리 없었으면 싶은 정도로 거의 모든 쪽마다 그림이 화려하게 들어가 글책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또, 그림을 살리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책들을 보면 내용보다는 겉멋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처럼 보여 더욱 씁쓸하다.

또 한 가지, 넘쳐나는 외국 그림책 수입 출판은 우리 어린이 그림책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해마다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국제아동도서전에 출품되는 좋은 그림책들은 바로 우리 나라에서 모두 수입돼 출판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다. 무작위로 들어오는 외국 그림책은 우리 어린이 그림책 출판의 앞날을 막을 뿐이다. 좋은 외국 그림책 열권을 쉽게 수입해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창작 그림책 한 권을 정성 들여 기획하고 펴내는 출판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작가도 찾아내고 키울 수 있다. 출판사나 편집자들이 좀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고, 우리 아이들 정서에 맞는 좋은 우리 그림책을 펴내기 위해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

통권 제310호 | 2001년 10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 722 - 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덕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